
GKEDC-주독대한민국대사관 공동주최
「한·독 수교 140주년 기념전」 개막식 참석
및 관계기관 업무 협의

2023. 6. 6. – 6. 11.

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

KDI 한국개발연구원

1 출장 배경 및 목적

- ☐ GKEDC는 한·독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자체 기념전시를 개최함과 동시에 주독대한민국대사관과 독일 현지에서 특별전을 공동개최할 예정
- ☐ 본 출장은 ‘한·독 수교 140주년 기념특별전’ 사전 점검, 독일 내 고위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 개막 리셉션 참석, 전시 관련 후속조치 논의, 스타트업 콘텐츠 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
 - 또한 외국인 교육 네트워크 구축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베를린자유대 한국어학과, 한국국제교류재단 베를린지사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
 - 독일 박물관의 전시기법 및 전시관람 어플리케이션 벤치마킹을 통해 GKEDC 사업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추진

2 출장개요

- ☐ 출장기간: 2023년 6월 6일(화) ~ 11일(일) [한국 출·입국일 기준]
- ☐ 출장지: 독일 베를린
- ☐ 주요 활동사항
 - (전시) GKEDC와 주독대한민국대사관이 공동주최하는 특별전 사전 점검과 독일 내 고위인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개막 리셉션 참석
 - (콘텐츠)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고 있는 스타트업 콘텐츠를 축적하기 위하여, 엑셀러레이터 면담 및 관련 영상자료 공유 요청
 - (교육) 독일 내 한국어 및 한국학 등을 가르치는 대학 및 재단 등을 방문하여 파트너십을 구축하고, 관련 교육 기회 창출의 가능성 타진
 - (운영) 선진 전시기법을 활용한 박물관 및 전시관을 견학하고, 전시관람 어플리케이션 등을 벤치마킹하여 GKEDC 전시관 리모델링 및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참고자료 확보

□ 출장자(총 4인)

#	성명	소속	직함	역할
1	김정욱	KDI 국제개발협력센터	소장	사업책임자
2	김순한	KDI 전시기획팀	전시기획팀장	사업관리자
3	선종인	KDI 전시교육실	전문연구원	사업실무자
4	진재률	KDI 운영총괄팀	전문연구원	사업실무자

3 출장일정

□ 세부 일정(안)

날짜	시간	일정	비고
6/6(화)	12:25	[이동] 대한민국 인천 출발	KE925
	18:55	[이동]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도착	
	20:45	[이동]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출발	KE6429
	22:00	[이동] 독일 베를린 도착	
	22:00-23:30	[이동] 호텔 이동 및 체크인	
6/7(수)	09:00-10:00	[전시] 한·독 수교 140주년 기념 특별전 사전 점검	Rotes Rathaus
	10:30-13:00	[면담]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시찰 및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면담	더 드라이버리 및 123 Factory
	14:00-15:00	[면담] GKEDC-베를린자유대 협력교육 추진 관련 면담	베를린자유대
	16:00-17:00	[면담] KIC 유럽지사 담당자 면담 및 시스템 관련 자문	글로벌혁신센터 유럽 (KIC EUROPE)
6/8(목)	11:00-13:00	[유관기관 방문] 구동독박물관	DDR Museum
	14:00-16:00	[유관기관 방문] 박물관 섬	페르가몬박물관 및 파노라마
	17:30-19:00	[전시] 한·독 수교 140주년 기념 특별전 리셉션 참석	Rotes Rathaus
6/9(금)	05:00	[이동] 호텔 체크아웃 및 공항 이동	
	08:25	[이동] 독일 베를린 출발	EW13
	09:35	[이동] 독일 본 도착	

날짜	시간	일정	비고
	10:00-12:00	[유관기관 방문] 유대인 박물관	
	14:00-15:00	[면담] 주독대한민국대사관 전시 관련 후속사업 협의	주독대한민국대사관
	15:00-16:00	[면담] KF 베를린지사 담당자 면담 및 프로그램 운영 협의	한국국제교류재단(KF)
6/10(토)	12:00	[이동] 호텔 체크인 및 공항 이동	
	17:30	[이동] 독일 베를린 출발	KE6430
	18:50	[이동]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도착	
	21:20	[이동]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출발	KE926
6/11(일)	16:10	[이동] 대한민국 인천 도착	

※ 음영 일정: 김정욱 소장은 타 출장으로 별도 일정 수행

4 주요 내용

[한-독 수교 140주년 기념 특별전 리셉션 참석]

□ 일 시: 2023년 6월 8일(목) 17:30~19:00

□ 장 소: 베를린시청사(Rotes Rathaus)

□ 참석자

- 내부: 김정욱, 김순한, 선종인, 진재률(직함 생략)
- 외부: 김유정 주무관(기획재정부), 엄나영 선임연구원(MBC+) 외
리셉션 참석자 약 200여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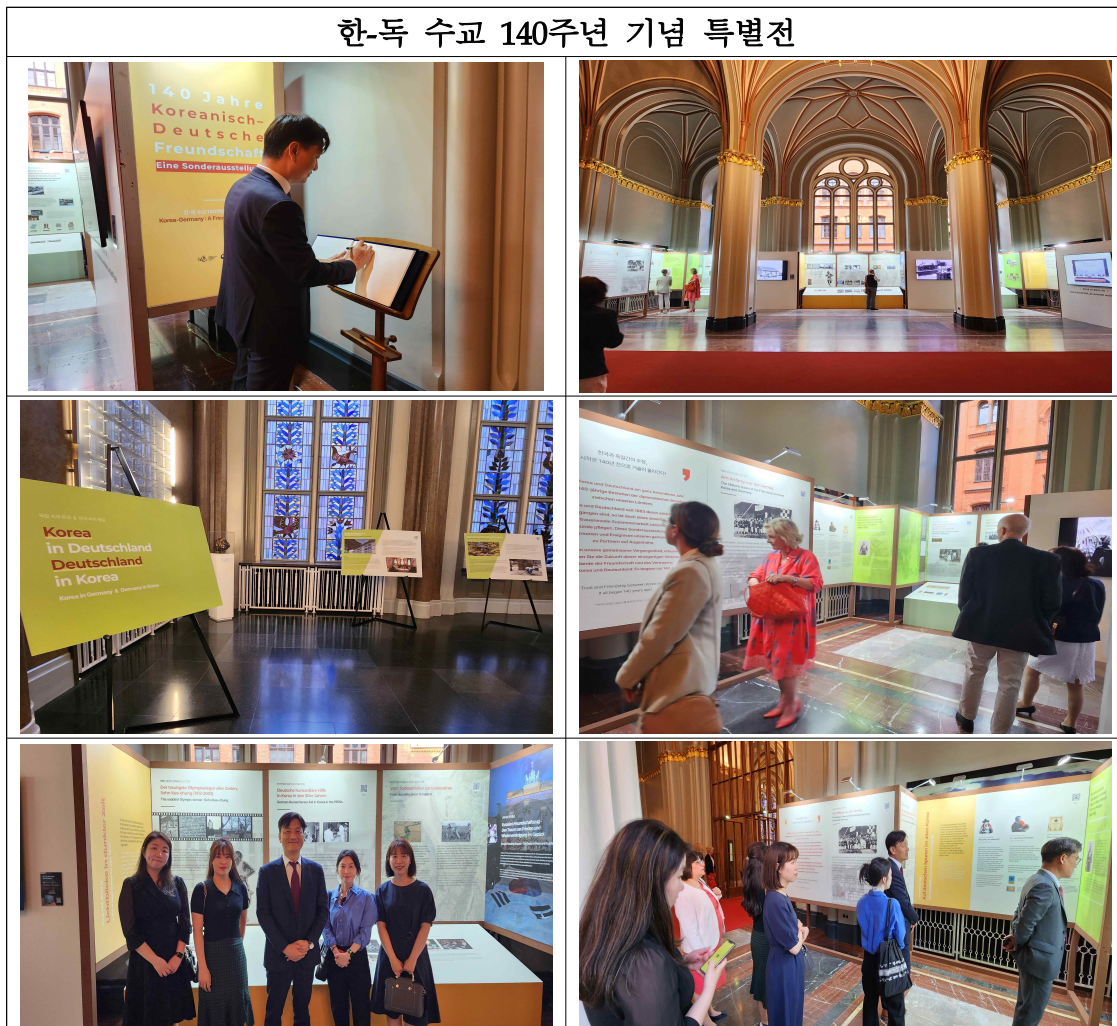
□ 주요 내용

- (주제) 서울과 베를린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한-독 수교 140주년 기념 특별전 관람 및 리셉션 참석
- 전시 개요
 - 전시타이틀
 - (국문) 한-독 수교 140주년 기념 특별전
 - (영문) Korea and Germany: A Friendship of 140 Years
 - (독문) 140 Jahre Koreanisch-Deutsche Freundschaft. Eine Sonderausstellung
 - 주요 전시 콘텐츠
 1. 1883년 조독수호통상조약 체결
 2. 옛 한국에 발자취를 남긴 독일인
 - (영상1) 고요한 아침의 나라
 3. 어두운 시대, 희망의 빛
 - (영상2) 박정희 대통령 독일 방문 등 1960~70년대 경제성장 영상
 4. 한강과 라인강의 경제 기적
 5. 함께 여는 미래
 - (영상3) 고위급 교류 사진, 부산세계박람회, 양국대사 인터뷰 등
 6. 독일인이 사랑하는 한국인, 한국인이 사랑하는 독일인, 독일 속의 한국, 한국 속의 독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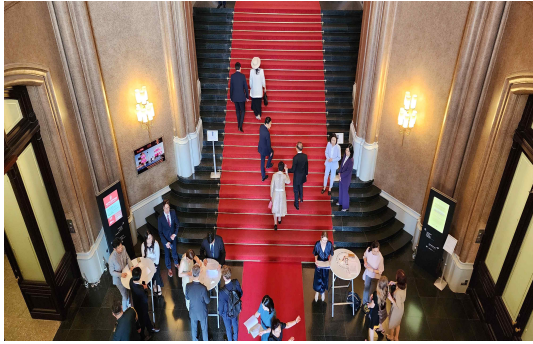
○ 전시 기념 리셉션

- 행사명: (국문) 한-독 수교 140주년 기념 리셉션
(영문) Korea and Germany: A Friendship of 140 Years
(독문) 140 Jahre Koreanisch-Deutsche Freundschaft
- 베를린시청사(Rotes Rathaus) 2층 행사홀(Festsaal)에서 개최된 리셉션은 독일연방정부의 정무·경제·무관·문화계 인사와 재독 동포단체 대표 및 교민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
- 주독일대한민국 대사 및 공사 내외 리시빙 → 개회 선언 → 양국 국가 연주 → 개회사(베를린시장) → 환영사(주독일대한민국대사) → 축사(외교차관) → 문화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
- 주독일대한민국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이번 특별전의 의미와 양국 간 교류 역사의 기록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

□ 관련 사진



한-독 수교 140주년 기념 리셉션



[관계자 면담]

1. 123Factory

① 일 시: 2023년 6월 7일(월) 10:30~13:00

□ 장 소: 더 드라이버리(The Drivery)

□ 참석자

- 내부: 김정욱, 김순한, 선종인, 진재률(직함 생략)
- 외부: 이은서 대표, 김경재 매니저, 이선영 매니저(이상 123Factory)
김유정 주무관(기획재정부), 엄나영 선임연구원(MBC+)

□ 주요 내용

- (회의배경)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고 있는 스타트업 콘텐츠 축적을 위한 엑셀러레이터 면담 및 전문가 자문 수행
- (논의내용)
 - 123Factory는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지식, 경험,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독일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적인 협력 기회를 제공
 - 스타트업들은 123Factory를 통해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과 네트워킹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, 투자자와 기업들은 혁신 기술을 발굴하고 투자 기회를 모색
 - 또한, 정부, 학계, NGO 등은 123Factory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으며, 혁신과 기술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관계 구축에 도움을 받음.
 - 유럽에 진출하려는 한국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유럽 잠재고객, 협력사 및 투자자와의 미팅을 통해 실질적인 해외 진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더 드라이버리(The Drivery)와 함께 'Market Entry Membership' 및 'Match-making membership'을 운영 중
 - 또한 컨퍼런스, 세미나, 면담 등을 주최하여 유럽 내 한국 스타트업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를 증진하는 등 스타트업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역할 수행

- 더 드라이버리(The Drivery) 공간에 입주해 있는 기업 소개
 - 공유 킥보드 스타트업 티어(Tier)의 경우 독일을 기반으로 유럽 및 기타 지역으로 확장한 글로벌 기업으로서 지능형 전기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며, 도시 내 이동 수단으로 많은 인기를 얻음.
 - 노타 AI는 온디바이스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으로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, 소형 사물인터넷(IoT) 기기에서 구동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을 압축(경량화)하는 기술을 개발
- 더 드라이버리(The Drivery)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, 상시적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 마련
- (협력방안) 신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수립 및 운영을 통해 스타트업 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GKEDC가 스타트업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료 수집 등에서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

□ 관련 사진



2.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

□ 일 시: 2023년 6월 7일(수) 14:00~15:00

□ 장 소: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

□ 참석자:

- 내부: 김정욱, 김순한, 선종인, 진재률(직함 생략)
- 외부: 이은정 학과장, 강호제 연구교수(이상 베를린자유대),
김유정 주무관(기획재정부)

□ 주요 내용

- (회의배경) 외국인 대상 한국경제발전사 교육 공동 운영방안 협의
- (논의내용)

(교육프로그램 관련)

- 한국경제발전 강의 수요는 있으나 내부 교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, 현재는 외부 특강* 형태로 한국경제발전사 강의를 진행
 - * 김준경 교수(Political Corruption) 및 박명호 교수(한국경제발전) 강연 실시
- Summer School의 경우 통일연구원, 불교문화사업단과 2015년부터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, 올해는 통일교육원 방문*(8/16~17)과 템플스테이(8/18) 진행 예정
 - * 12시간 수업 및 판문점 방문
- 한국국제교류재단(KF)-서울대·고려대·연세대와 연계하여 e-class 수업 진행
- KDI School-조지워싱턴대-존스홉킨스대와 public diplomacy 양성과정 공동운영
-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는 단순히 한국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성장의 기틀로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춘 수업 난이도 조율이 필요

(GKEDC 운영 관련)

- 베를린자유대의 프로그램은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0년 단위로 기획

되어 운영

- 글로벌 싱크탱크이자 경제분야 한국 최고의 연구소인 KDI가 단기 용역 사업으로 GKEDC를 운영하고 있는 점이 아쉬우며, 이에 기획재정부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GKEDC 운영을 고려할 것을 제안

○ (협력방안)

1. Summer School 공동 운영

- 既 진행 중인 통일교육원 및 불교문화사업단 프로그램에 한국경제발전 사에 대해 학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포함하여 공동 운영
- 1~2일 과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, 통일교육원 내 기숙사 시설 사용 관련 협의 필요

2. 교환학생 방문 시 교육프로그램 운영

- 10~2월 경 방문하는 베를린자유대 교환학생(약 60명)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
- 교육 언어는 영어로 하되, 한국학 전공학생의 경우 한국어 교육 가능

3. 학점과정 기획

- (과정기간) 약 15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학점과정 공동 기획
- (과정구성) 읽기자료 학습→강연 및 토론→집단 및 개인 멘토링→논문 작성 등으로 구성
- (추후계획) GKEDC 전시도록 중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과정 운영

□ 회의 사진



3. KIC-EUROPE 글로벌혁신센터

☐ 일 시: 2023년 6월 7일(수) 16:00~17:00

☐ 장 소: KIC-EUROPE 내 회의실

☐ 참석자

- 내부: 김정욱, 김순한, 선종인, 진재률(직함 생략)
- 외부: 황종운 센터장, 최원근 사무총장(이상 KIC-EUROPE)

☐ 주요 내용

- (회의배경) 유럽 주요국 스타트업 생태계 인프라 지원 사례 및 온라인 전시 관련 자문
- (논의내용)
 - KIC-EUROPE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산하기관으로, 2014년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한국과 유럽 간 협력을 목적으로 각종 스타트업과 산업체 등에 대한 기술 지원, 기업 컨설팅, 비즈니스 미팅, 전시회 참여 지원 등의 활동을 해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
 - 제품·서비스 현지화 등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및 기술사업화 지원
 - 국내 벤처·중소기업의 유럽 진출 멘토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
 - 지원기업의 성장을 위한 인큐베이팅 및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
 -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, 창업 종합지원 및 성공사례 도출
 - 창업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
 - KIC-EUROPE은 IFA(베를린국제가전박람회)에서 노타 AI, 브레싱스 등 국내 8개 기업을 위한 'K-Innovation Store|B2B' 전시관을 운영하고 유럽 투자자 대상 개별 피칭기회를 마련하여 참가기업에 유럽진출 기회를 제공
 - 관련 전시에서 온라인 전시공간 구축 및 온라인 행사로 넥스트 노멀(Next Normal) 형태의 전시를 선보임.
 - 온라인 부스를 구성하여 제품 데모, 시연, 가상현실 체험 등을 비디오 또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관람객들에게 제공

- 디스커션 세션을 통해 관람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한편,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 주요 프로그램과 행사를 실시간으로 전달
- 오프라인 활동을 최대한 온라인으로 이전하고, 컨퍼런스와 스트리밍을 통해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투자유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 개발 작업 진행
- KIC-EUROPE의 목표는 유럽 수요에 맞춰 한국과 협력하여 기술 파트너를 구체화하고 장기적인 매칭 작업을 통해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으로, 이를 위해 현재 국내 파트너(스타트업)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음.
- (협력방안) KIC-EUROPE의 네트워크 및 온라인 전시 경험을 확인함에 따라 스타트업 관련 전시콘텐츠 자료 수집 시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, 온라인 전시 구축 시 VR, 가상 전시부스, 채팅방 등에 대한 벤치마킹 및 자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

□ 회의 사진



4.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

- 일 시: 2023년 6월 9일(금) 14:00~15:00
- 장 소: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내 회의실
- 참석자

- 내부: 김순한, 선종인, 진재률(직함 생략)
- 외부: 박혜자 1등서기관(주독대한민국대사관), 엄나영 선임연구원(MBC+)

□ 주요 내용

- (회의배경) GKEDC-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공동주최 한-독 수교 140주년 기념전 마무리 및 후속 사업 논의

- (논의내용)

(한-독 수교 140주년 기념전)

- 6/5(월) 개막 후 일평균 300~400명이 방문하여 6/8(목) 현재까지 약 1,500명 관람*

* 관광 및 수학여행 철과 맞물려 예상보다 많은 관람객 방문

- 이번 전시는 베를린시청과 특정국 대사관이 진행한 최초의 교류협력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, 비용과 시간 등 여러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원활한 협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평가

(콘텐츠 관련)

- GKEDC가 전시콘텐츠를 공유하였으나, 베를린 전시의 경우 주독대한민국 대사관 주도 하의 전시가 기획되었으므로 GKEDC 전시와 100%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지는 않았음.
- 전시 사진의 경우 약 80% 이상 GKEDC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사용
- 스타트업 인터뷰 영상의 경우, 서울과 베를린 전시를 모두 고려하여 제작한 것으로 베를린 전시장 내 영상 상영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

(저작권 관련)

- 대부분의 베를린 전시 사진은 외교부 공문협조를 통해 연합뉴스 아카이브 사진을 활용
- 인물사진은 사전확인 및 협조를 받은 것으로서 문제의 소지가 없으나, 특정 사진의 경우는 초상권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음.
- 프랑크푸르트 등 타 영사관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순회전시 및 대사관 홈페이지에 전시콘텐츠 내용을 영구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, 별도의 저작권 협의*가 필요

* 현재 전시 중인 콘텐츠의 경우, 서울과 베를린 전시로만 활용되는 것으로 협의

(순회전시 관련)

- 향후 순회전시가 이루어져 GKEDC가 저작권 협의 등 관련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경우, GKEDC가 해당 전시의 공동기획 또는 협조기관 등

으로 명시되는 것이 필요하며, 이는 부서장 확인 후 최종 결정 가능

- GKEDC의 경우, 해외전시 실적이 전시의 확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- 독일 내 순회전시 방식 관련 추가 논의 필요

○ (후속조치)

- 순회전시 관련 GKEDC 내부 보고 후 내용 공유

- 이후 결정되는 사안 관련 저작권 협의 등 업무 협조 예정

5. 한국국제교류재단(KF) 베를린 사무소

□ 일 시: 2023년 6월 9일(금) 15:00~16:00

□ 장 소: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내 회의실

□ 참석자

- 내부: 김순한, 선종인, 진재률(직함 생략)
- 외부: 방경민 한국국제교류재단 베를린 사무소장

□ 주요 내용

○ (회의배경) GKEDC 소개 및 KF 베를린 사무소 프로그램 공동 기획 협의

○ (논의내용)

(KF 소개)

- KF는 외교부 산하기관*으로 일반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

* KF(일반 외국인 대상), 재외동포재단(재외동포청으로 합병), KOICA(ODA사업), 아세안문화원(아세안 10개국 대상 사업 수행) 등이 있음.

- 주요 사업 분야는 한국학진흥사업, 인사초청, 다자간 포럼, 싱크탱크 내 한국 관련 연구기금(Funding) 지원, 해외 문화예술 사업 등이 있음.

- 제주본사, 서울지사 등에 약 1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, 해외사무소*에는 약 15명 상주 근무 중

- * 베를린, 한미미래센터, LA, 베이징, 도쿄, 하노이, 모스크바 및 자카르타 등 총 8개소

(KF 베를린 사무소 소개)

- 1인 사무소 개념으로 소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 중
- 서유럽 및 아프리카 지역을 담당하며, 아프리카의 경우 한국어 객원교수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담당
- 독일 6개 대학에서 한국학 학위과정이 운영 중이며, 중점분야는 인문학, 사회문화, 한국학, 한국문학으로 사회과학분야(정치학, 사회학, 경제학)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
- 재외공관별로 해외 유력인사 초청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, 독일에서는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100여명 정도의 유력인사*를 선발하여 1주일 이내의 방문 프로그램을 추진
- * 경력과 경험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며, 경제분야 및 의회 측 참석자의 경우 한국경제발전사에 대한 관심이 높음.
- 독일의 경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 그린수소, 수소에너지, 재생에너지, 순환경제 등의 주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, 기업의 기술 현황과 내용 공유에 대한 수요가 존재
- 학생프로그램은 Funding 제공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, 주로 한국학 진흥 장학사업 및 한국어 교사 지원이 주로 이뤄지고 있음.

○ (협력방안)

1. 해외 유력인사 초청사업

- 해외 유력인사 방한 시 GKEDC 방문 추진

2. 유럽 내 대학교 온라인 교육과정 홍보

- 독일을 포함한 유럽 내 대학교에 GKEDC 온라인 교육과정 홍보

3. 환경 분야 세미나 및 포럼 정보 공유

- 한국에서 개최되는 환경 분야 온라인 세미나 및 포럼 등의 정보 공유

□ 회의 사진

	
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면담	KF 베를린사무소 면담

[유관기관 방문]

1. DDR 박물관 (구동독 박물관)

□ 일 시: 2023년 6월 8일(목) 11:00~13:00

□ 주요 내용

- (주제) 동독 당시의 일상생활을 다룬 일종의 생활사 전시관으로 다양한 형태의 체험형 전시콘텐츠를 제공
- (전시내용 및 특징)
 - 장벽과 철조망에 의해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던 동독(DDR,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)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전시관으로, '공공생활', '국가와 이데올로기', '타워 블록에서의 생활' 등 세 가지 테마로 전시 구성
 - 해당 전시관은 1,000m² 이상의 전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, 45개 이상의 세부 주제를 다루고 있음.
 - DDR 박물관은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전시관을 지향하고 있어 단순 관람보다는 보고, 만지고, 듣는 등의 체험을 강조하는 전시 연출을 활용한 것이 특징
- (시사점)
 - DDR 박물관은 생활사를 다루고 있어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전시콘텐츠가 매력적인 전시관으로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는 GKEDC 전시관 콘텐츠와 접점이 존재
 - 동독 당시의 아파트를 콘셉트로 화장실, 침실, 거실, 주방 등을 재현하고, 곳곳에 영상, 사진, 미디어 등의 체험형 전시콘텐츠를 제작 및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
 - 어린이 관람객 대상의 체험 전시뿐만 아니라 청소년, 성인, 외국인 관람객도 흥미를 갖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연출 방식들을 다양하게 활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GKEDC 전시에 벤치마킹할 사항들이 존재

□ 관련 사진



2. 페르가몬 박물관 + 파노라마 전시관

□ 일 시: 2023년 6월 8일(목) 14:00~16:00

□ 주요 내용

- (주제) 베를린 박물관 섬 내 5개의 박물관 중 하나로 유럽의 중근세 역사와 헬레니즘 문화를 전시하고 있으며, 가장 유명한 페르가몬 제단은 파노라마 전시관에서 3D 형태로 제공

○ (전시내용 및 특징)

(페르가몬 박물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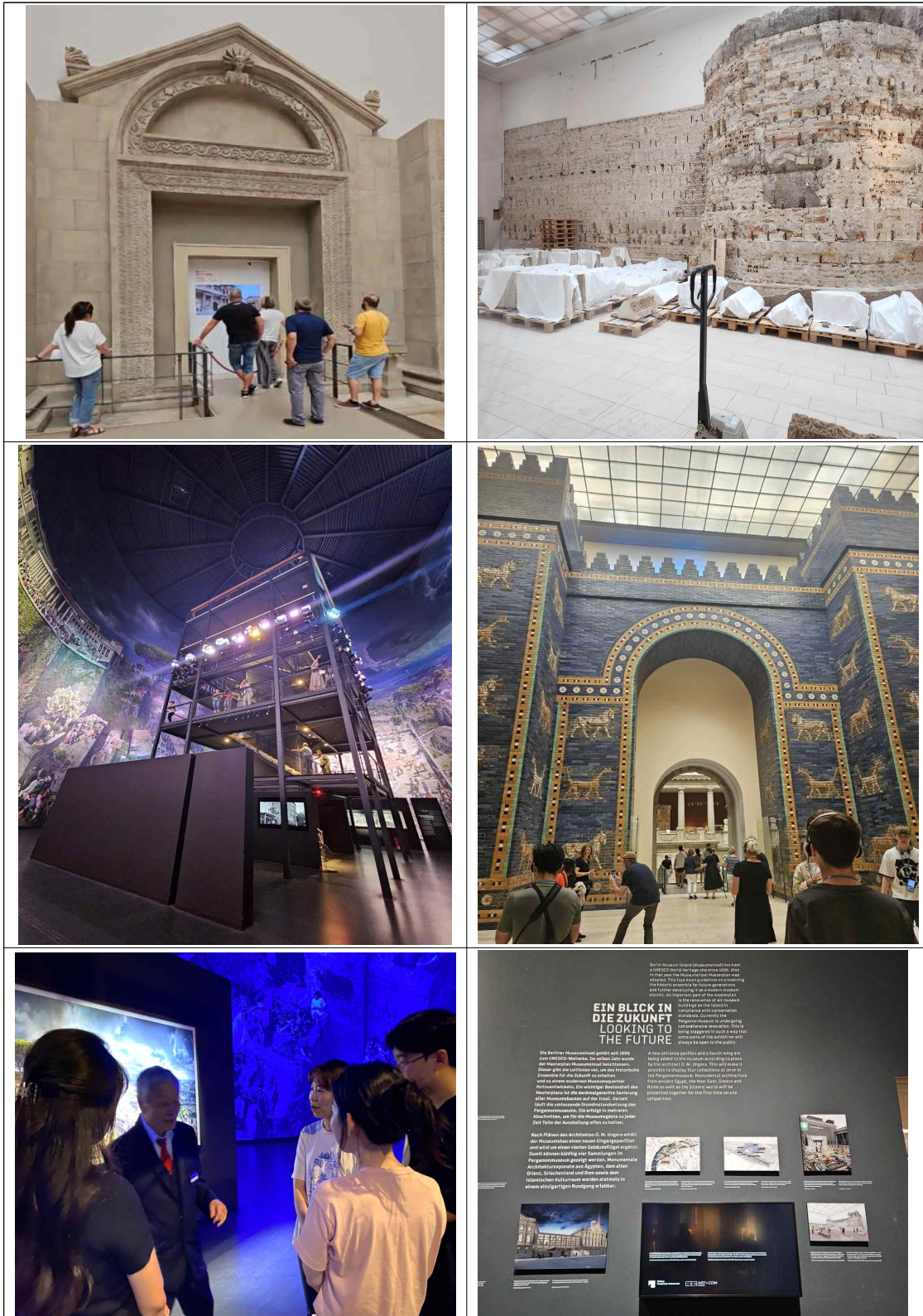
- 1830년 구박물관이 지어진 이래로 100년이 지난 1930년 대중들에게 개방

- 바벨론 시대 이슈타르로 향하는 문(Ishtar gate of Babylon)은 해당 파편을 수거하여 10년간 다시 붙여서 만들어 낸 엄청난 규모의 전시물
 - 밀레토스 시장 문(Market gate from Miletus) 또한 거대한 크기로 유적지에서 출토된 그대로를 옮겨 전시
 - 페르가몬 제단의 경우, 리모델링 중인 모습을 관람객에게 일부 공개하기도 하고, 리모델링 완료 후의 모습을 안내하는 사전영상을 제작해 제공
- (파노라마 전시관, Pergamonnuseum. Das Panorama)**
- 360° 파노라마 전시관은 AD 129년 페르가몬 지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도록 구현해 놓은 전시관으로 중앙의 타워에 오르면 페르가몬 전체 모습을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음.
 - 2003년부터 Yadegar Asisi가 세계 최대 규모의 파노라마를 구현하기 시작했으며, 고대 역사를 직접 그리거나 디지털 이미지 창조 기술을 통해 표현하여 ‘아시시 파노라마’라고 불리기도 함.
 - 페르가몬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페르가몬 제단(Pergamon-Altar)은 현재 보수 중이나, 아시시 파노라마 전시관을 통해 구현된 3D 화면을 통해 관람객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.

○ (시사점)

- 이슈타르 문과 밀레토스 시장 문 등 큰 규모의 전시물을 보존하고 있는 박물관답게 층고가 상당히 높고 전반적으로 밝게 유지되고 있음.
-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리플릿 등을 통해 충분히 사전 안내가 되어 있었으며, 기존 박물관들이 리모델링 구간을 단순히 천막으로 가리는 것과 달리 영상 등을 통해 관람객이 리모델링 완료 후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던 점이 인상적이었음.
- 또한 파노라마 전시관에서 고화질 3D 화면으로 페르가몬 제단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, 리모델링의 역사를 패널로 설명한 부분은 관람객에 대한 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향후 GKEDC가 리모델링 수행 시 벤치마킹할 요소라고 생각됨.

□ 관련 사진



3. 유대인 박물관

□ 일 시: 2023년 6월 9일(금) 10:00~12:00

□ 주요 내용

- (주제)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독일 유대인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형태의 인터랙티브 전시 연출로 구현
- (내용 및 특징)
 - 이스라엘의 현대 미술가 메나셰 카디쉬만은 무고하게 희생된 유대인을 기억하고자 수많은 양철 얼굴을 ‘기억의 빈 공간(Memory of Void)’ 바닥에 ‘떨어지는 낙엽(Schalechet_Gefallenes Laub)’이라는 이름으로 설치
 - 건물은 폴란드 출신 유대인 다니엘 리베스킨트(Daniel Libeskind)가 설계하였으며, 박물관 곳곳에 직선과 삼각형 형태의 비정형 선들을 배치하여 유대인이 떠난 자리, 즉 공백(void)이라는 의미를 부여
 - 유대인 학살을 위주로 전시하는 기존 홀로코스트 전시와 달리, 베를린의 유대인 박물관은 유대인의 시작과 전성기, 그리고 다른 국가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 전반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음.
- (시사점)
 - 내부 동선이 독특한 구조였는데, 메인 계단의 가장 상단부터 시작되는 전시를 보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고난의 연속이었을 유대인들의 힘겨웠던 삶에 대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음.
 - 홀로코스트의 경우 여러 시각적 매체(사진, 영상 등)를 통해 당시의 비극을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, 이곳은 Memory of Void에서 청각을 자극하여 희생을 충격적으로 전달하고 있었음.
 - 전시를 구현함에 있어 역사적 진실(Fact)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나, 동시에 전달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시각, 청각 등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함께 고민될 필요가 있음.

□ 관련 사진

